“일제강점기 불교순회강연, 불교청년운동 견인”

김경집 교수, 불교학보 106집 게재 논문서 주장

1920~30년대 강연단 활동 조명
조선불교청년회가 강연 주도해
지식계발, 新사상 전파 등 이뤄
지역별 불교청년회 창립 이끌어
시대 비판 강연에 일제 탄압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강점기인 1920~1930년대 이뤄진 불교계 순회강연단의 활동이 지역 불교청년운동을 견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집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불교학보〉 제106집(동국대 불교학술원 발간)에 게재한 ‘일제강점기 불교계 순회강연단 계몽활동이 지방불교청년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불교순회강연단 활동 배경과 전개 등을 조명했다.

김 연구교수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통치로 통치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식민지 체재를 극복하고 자주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계몽운동이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불교계도 1920년 6월 조선불교청년회를 설립하며 시대 흐름에 동참했다. 조선불교청년회는 1920년 10월 순회강연단을 조직하고 전국을 돌며 불교 강연을 시작했다.

순회강연단은 호남, 부산, 대전, 경의·경원선 방면으로 전국을 구별하고 각각 방면마다 2명의 강사를 배정해 강연을 진행했다. 첫 순회강연은 19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26일 동안 진행됐으며, 총 38곳에서 강연이 이뤄졌다.

1921년에는 재일조선불교청년회가 순회강연단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순회강연단 제1대는 호남 방면을, 제2대는 경기·경부 방면을 담당했다. 이들은 주요 도시와 사찰을 방문해 1일 1회 강연을 약 30여 일 진행했다.

두 불교청년단체는 연합해 순회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선불교청년회와 재일조선불교청년회는 1922년 7월 연합순회강연단을 결성하고 제1대 경부·경의선, 제2대 경부선, 제3대 호남선, 제4대 경원선으로 방면을 나눠 순회강연을 다녔다.

김 연구교수는 “순회강연단의 활동이 인기가 좋아 특별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실제 청주에 소재한 여러 단체의 요구로 1922년 8월 16일 오후 8시에 특별강연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제의 탄압도 있었다. 일제는 순회강연단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강연 내용을 감시했다. 김 연구교수는 “일제 경찰은 강연장의 상주하며 강연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실제 세계정세와 민족의식 강조를 골자로 한 강연을 펼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순회 강연은 각 지역 청년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이는 지역별 불교청년회 결성으로 확인된다. 순회 강연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불교청년회가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1921년엔 7곳, 1922년엔 6곳이 창립됐다. 강연회 활동이 끝난 뒤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1923~1925년에는 7곳의 청년회가 조직돼 활동했다.



중앙불전 제1회 하계 순회강연단 단원들의 기념촬영. 1929년 7월에 촬영됐다. 1920년 시작된 불교 순회강연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출처=민족사刊〈한국불교 100년(1900~1999)〉

순회강연단 이후 전개된 불교청년운동으로 인해 1930년 무렵까지 10곳의 지역 불교청년회가 창립됐다.

김 연구교수는 “설립 추이로만 본다면 일제강점기 전국에 설립된 지방 불교청년회는 순회강연단 활동과 영향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20여 곳이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40여 곳 중 50%에 이르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짧은 시간 많은 지역에서 불교청년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사찰의 후원으로 중앙에서 공부하던 학인들의 역할이 컸다”며 “이들은 중앙에서는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연고 지역과 사찰에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지역 조직 설립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불교청년운동의 영향으로 창립된 지역 불교청년회는 연극을 통한 포교와 계몽운동, 지역 야학소 및 학교 운영, 스포츠 활동, 빈민 구제 등을 전개했다.

김 연구교수는 “연극은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며, 문화적인 성과가 있어서 자주 행해지는 계몽운동이었다”면서 “내용은 부처님 생애와 불교의 인연 과보에 대한 것이 많았지만, 그 속에 사회적 이슈들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방 불교청년회의 계몽활동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며 지역민의 의식 전환을 견인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계몽운동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불교계 활동 역시 지역 대중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보물서 국보로 승격돼

국가유산청 1월 9일 지정공고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 소재한 보물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 석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석탑의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후기 충청과 호남 지역에 성행한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인다는 점, 2층 탑신의 동·서·남·북에 조각된 사방불의 머리 위 장식이 고려 후기의 불상에서만 등장하는 동그란 모양이라는 점 등의 세부 표현기법으로 미루어보아 고려 후기(14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2중으로 조성된 석탑의 기단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인다”면서 “석탑 지대석에는 게의 눈과 같은 형상의 곡선 모양을 일컫는 해목형 안상(蟹目形 眼象)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석탑에서 최초로 발견된 사례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보로 지정한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 범음구, 큐레이터 생생 해설로 듣는다

國博 새해 첫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이 올 1월에도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불교 범음구’와 관련된 전시품을 큐레이터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관람할 수 있어 주목된다.

새해 첫 달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총 12회 진행되는데 범음구(梵音具)를 비롯해 말갖춤, 문양전, 기와, 나전칠기, 무기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두 개의 특별전에 대한 설명이 총 4회 진행된다.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전시 기간: 2024.11.26~2025.3.3)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매주 3회에 걸쳐 마련됐다. 동·식물, 인물 등 형태를 본떠 만든 상형청자를 감상하며 고려 청자만의 미감과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전시 기간: 2024.11.30~2025.3.3)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셋째 주에 열린다. 1900년 전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등의 전시품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첫째 주에 ‘말갖춤으로 보는 가야문화’가 가야실에서, ‘부여 외리 문양전’이 백제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서화실에서는 ‘강세황의 자화상’을 주제로 조선 후기 문인 서화가이자 평론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자화상에 대한 궁금증을 나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1월 큐레이터 대화에 소개되는 천흥사 동종.

둘째 주에는 ‘한국의 기와’가 기증실에 마련됐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와당(瓦當) 컬렉션인 유창종, 이우치이사오 선생 기증품을 큐레이터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가야와 왜의 교류’는 가야실에서 진행된다.

세 번째 주에는 더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됐다. 조선실에서 열린 ‘조선의 시한폭탄 비격진천뢰’는 임진왜란 때 공격용 무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다. ‘빛의 예술 나전칠기’(목칠공예실)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나전칠기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속공예실에 전시되는 ‘불교 범음구’에서는 천흥사 동종과 쇠북(금고)을 살펴보며 불교의식에 사용됐던 범음구(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소리를 내는 도구)를 깊이 있게 알아본다. 김내영 기자



초기불교와 불교윤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불교윤리학 입문
불교는 우리 시대가 대면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 전통적 주제부터 AI나 유전자 복제 등 최신 주제까지, 명료한 설명과 풍부한 예시로 풀어낸다.
데미언 키온 저, 조은수 옮김/신국판/무선/216쪽/값 15,000원

시카고대학 출판부의 유명 시리즈!
무에 대한 탐구
무無는 불교의 본질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대 비평이론에서 핵심적 개념이기도 한데, 왜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에서 불교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가?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옮김/408쪽/값 25,000원

한국불교 현대사의 산 증인, 김재영 법사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60년 동안의 신행과 전법 활동,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온전히 담긴 이 책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현대불교사의 소중한 기록이다!
김재영 지음/신국판/무선/5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